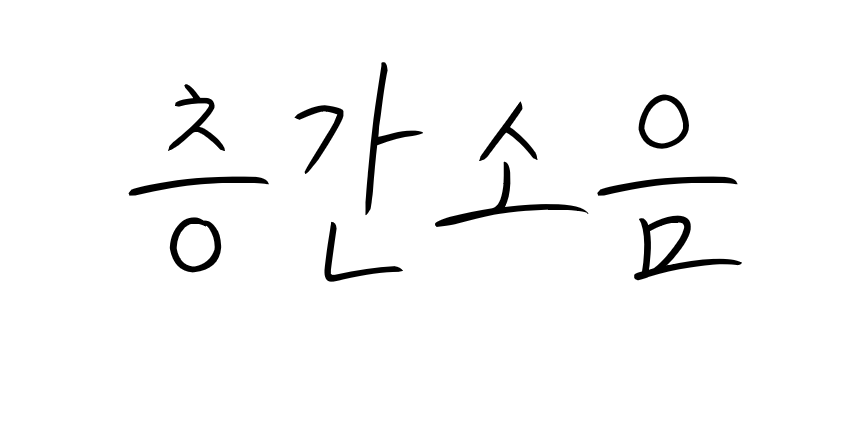
디자인실습 : 5 Scene 단편 제작

층간소음 Ver. 2

**연출의도**

층간소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인기척이 눈물 나게 그리울 때. 어쩌면 우리는 윗집의 층간소음조차도 반갑게 느끼지 않을까. 청소기 돌리는 소리도,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도, 부모의 꾸지람 소리도..

(물론 층간소음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억지로 미화시켜서 표현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알아 두길 바란다.)

****

**감독**

\*\*\*

**CAST**

소년

윗집 엄마

최종수정일 : 2019. 05. 25.

S#1. INT 소년의 방 (D)

어두운 방. 침대에 홀로 앉아있는 소년(남. 18). 창문 너머 나오는 빛에 의해 창살의 그림자가 소년 위로 드리운다. 감옥 같은 느낌이 든다. 소년은 이제 막 일어난 듯 머리가 떠있다.

윗층에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가 어렴풋이 흘러나온다.

청소기 소리를 멍하니 듣던 소년, 무기력하게 윗층을 올려다본다.

***TITLE IN 층간소음***

S#2. INT 부엌 (D)

시리얼 박스를 그릇에 쏟아 붓는 소년.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시리얼에 붓는다. 그러다 실수로

우유를 선반에 약간 흘린다. 행주로 부랴부랴 우유를 닦는 소년. 그러다 또 선반 끝 모서리에 엄

지 발가락을 찧는다.

**소년**

**아! 씨…**

소년은 한 명이 앉기에는 꽤 넓어 보이는 ㅡ 대략 4인용 식탁 ㅡ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입에 우겨 넣는다. 윗층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쿵쿵 대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쿵쿵댈 때마다 시리얼 그릇의 우유에는 일련의 파장이 생긴다.

S#3. INT 옷방 (D)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는 소년. 등 구석이 가려운 듯 연신 등을 긁는다. 하지만 잘 닿지 않는다. 상의를 갈아입던 도중 참다 못해 소년은 헹거에 걸려있는 옷걸이 끝부분에 등을 가져다 대며 등을 긁는다.

S#4. INT 안방 (D)

엄마와 아빠로 보이는 두 명의 영정사진이 보인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들 앞에 앉아있는 소년. 향을 피운 채 조용히 부모님 영정 사진에 문안 인사를 드린다.

위로 향하는 향 연기. 윗층에서는 ‘뛰지마! 밑 층에서 올라온다’라는 식의 호통 소리가 들려온다. 소년은 눈을 뜨더니 윗층을 응시한다.

제단을 정리하는 소년. 그 때 향을 꽂은 병을 정리하던 도중 윗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엄마…’하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놀란 소년은 실수로 향을 피우고 남은 재를 부모님 영정사진 위에 쏟아버린다. 부모님 얼굴 위로 흩뿌려진 검은 재를 응시하는 소년.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소년의 엄마 영정사진이 보인다. 소년은 입술을 깨물곤 참다 못해 방을 빠져나간다.

S#5. EXT 윗층 복도 (문 밖/현관문) (D)

윗층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소년. 숨소리가 거세다. 문 너머로 아이가 그토록 부르짖던 ‘엄마’

(여.45)라는 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엄마 (V.O.)**

**거봐! 엄마가 뭐랬어!! 아랫집에서 올라온댔지!**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린다. ‘엄마’와 소년이 눈이 마주친다.

**엄마**

**(목소리 톤 차분히 바뀌며) 죄송합니다. 저희 얘가 많이 시끄ㄹ..**

**소년**

**… 아뇨**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엄마’. 소년은 옷에 묻은 재를 털며 옅은 미소를 띄운다.

**소년**

**시끄럽게 해주세요.**

**엄마**

**… 예?**

**소년**

**더 시끄럽게 해주세요.**

**… 저희 집이 너무 조용하거든요**